

진정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WHAT ARE YOU REALLY WORKING FOR?

By Robert J. Tamasy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

우리 중 대다수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에너지와 수고로움, 그리고 오랜 시간이 소비되는 매일의 고된 일 가운데서 말이다. 특히 소중한 목표와 포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좌절감을 해소해주는 듯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부유한 부동산계 거물이 죽을 때 자신을 화장하고 남은 재는 모래시계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이 모래시계는 그의 은행원과 회계사, 그리고 수년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감사를 수행했던 소득세 대리인에게 주어졌다. 유언장을 통해 그 부자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던 까닭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주머니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깨달은 후에 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무래도 죽고 나서도 저들을 위해 계속 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와 같은 냉소적인 모습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실상 구약성경 전도서에서의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이러한 관점으로 그 시작을 열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고대 왕의 좌절이 느껴지는가?

그는 계속해서 얘기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전 1:3, 11)

Have you ever had moments when you asked yourself, “What am I really working for?” I suspect many of us have wondered about this, at least once in a while. The daily grind, the energy, effort and long hours expended. Especially when cherished goals and aspirations still seem out of reach.

Recently I heard a humorous story that seemed to address this frustration: When wealthy real estate magnate died, he had left instructions that his body be cremated, and then have his ashes put into hourglasses. These hourglasses were to be given to his banker, his CPA, and the income tax agent who had conducted his numerous audits over the years. In his will, the rich executive explained his reasoning. He said that after realizing how much of the money he had earned ultimately had gone to these men, the rich man quipped in his will, “I spent much of my life working for these people. I might as well keep working for them after I’m dead.”

This cynical look at life is not uncommon. In fact, in the Bible’s Old Testament book of Ecclesiastes, King Solomon – reputed to have been the richest and wisest man in the world – opened with this perspective: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Ecclesiastes 1:2). Do you sense the ancient king’s frustration?

He continues, *“What does a man gain from all his labor at which he toils under the sun?... There is no remembrance of men of old, and even those who are yet to come will not be remembered by those who follow”* (Ecclesiastes 1:3,11). Sounds like what the wealthy man was thinking when he ordered his ashes

마치 부자가 자신의 유골을 모래시계에 담으라고 지시했던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적어도 자기 자신의 일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솔로몬 왕은 이후에도 그의 책을 통해 계속해서 한탄을 이어갔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전도서 2:17-19)

그래서, 과연 이게 다란 말인가? 우리의 일과 경력 쌓고자 바쳤던 많은 시간과 몇 주, 몇 달, 몇 년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말인가? 감사하게도 성경말씀은 솔로몬의 불평으로 결론을 짓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참된 의미와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르는 것 밖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오랜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는 것들을 포함한 강력한 훈계를 하신 뒤, 청중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원히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해답을 제공하셨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나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의역하고 싶다.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날 수 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헌신하며, 믿음의 유산을 쌓고, 우리가 힘써 맺은 열매들을 미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be put into hourglasses. At least a small part of himself would continue in that way.

King Solomon continued his lament later in his book: *“So I hated life, because that work that is done under the sun was grievous to me. All of it is meaningless, a chasing after the wind. I hated all the things I had toiled for under the sun, because I must leave them to the one who comes after me. And who knows whether he will be a wise man or a fool?” (Ecclesiastes 2:17-19).*

So, is that it? Is the work that we do, the many hours and weeks and months and years we devote to building our careers, ultimately of no value? Thankfully, the Scriptures do not conclude with Solomon’s complaints. In fact, if we desire for our lives to have true meaning and lasting impact, all we need to do is follow the exhortation Jesus Christ gave during His so-called Sermon on the Mount.

After many strong admonitions, including some that went against long-standing traditions and practices of that time, Jesus offered His hearers an assurance that their lives could make a difference – one that would last for eternity: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Matthew 6:19-21).

How can we do this? Jesus provided the answer. *“But seek first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hew 6:33).* I would paraphrase it this way: We can spend our lives working for ourselves, and leave everything behind. Or we can devote ourselves to serving the Lord and others in His name, and build a legacy, sending the fruits of our labors on ahead.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앞서 “나는 진정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 또는 그와 비슷한 질문을 떠올린 적이 있나요? 그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At the beginning we see the question, “What am I really working for?” Has that, or a similar question, ever crossed your mind? What has been your answer?

2. 어느 부유한 부동산 거물과 솔로몬 왕이라는 두 가지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우리의 인생 특히 일터에서 바친 삶의 대부분이 무익함과 좌절로 이어진다고 결론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각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 누군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We find two examples – the wealthy real estate magnate, and King Solomon – who both seem to have concluded that much of what we devote our lives, especially in the workplace, leads to futility and frustration. How do you respond to this perspective? If a person has this attitude, what impact will it have on how he or she pursues life?

3.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대조적으로 권면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Next we see the contrast, Jesus Christ encouraging His followers to store up treasures in heaven, instead of seeking to store up treasures on earth. What do you think this means?

4. 예수님의 마지막 훈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덧없고, 변화무쌍하며, 경쟁이 치열한 21 세기 시장 속에서 이를 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이 그렇게 행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Jesus’ last admonition is to “seek first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ow does someone go about trying to do that in the 21st century marketplace, with its volatile, ever-changing,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Especially when it seem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and companies are not doing that – or have any desire to do so?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전도서 9:7-10, 12:13-14, 고린도전서 3:9, 10:31, 고린도후서 5:17-21

-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도서 9:7-10)
-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도서 12:13-14)
-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17-21)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교실업인회 www.cbmc.or.kr